
공공미술위원회 회의록

2018. 1.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18년 제1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1. 24. (수) 14:00~16:30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장 등 16명
- ◆ 진행순서
 - 14:10-15:35 상정안건 심의(3건)
 - 15:35-16:30 자료 검토 및 논의(2건)
- ◆ 상정안건 : 심의 3건 ※ 기타(자문 및 논의) 2건
 - 심의대상(3) : 「보타닉 서울」 추진, 「퍼블릭x퍼블릭」, 「서울은 미술관」 컨퍼런스
 - 기타사항(2) : 동상·기념비 심의 방안, 워크숍 개최
- ◆ 회의결과 : 승인 1건, 보완 재 심의 2건
 -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보타닉 서울' 사업 추진 : 보완
 - '18년 공공미술축제 「퍼블릭x퍼블릭」 개최 운영 : 보완
 - 제3회 「서울은 미술관」 국제 컨퍼런스 개최관련 기획사 사전 선정 : 승인

□ 위원 발언 내용

000 : 2018년 제1차 공공미술위원회를 개최하겠음. 작년까지 자문회의로 운영하다 올해부터 의결 형식을 거치는 공공미술위원회로 운영됨.
오늘 회의는 금년도 주요 사업 3가지에 대한 심의와 동상기념비 심의 운영방안 관련하여 논의함.

안건 1. 녹사평 공공미술

000 : 작년에 중점사업 지역으로 심의를 해서 녹사평역이 1순위로 선정이 되었고 사업예산이 커져 디자인정책과 9억 예산과

서울교통공사 예산 18억원을 포함하여 27억이 되었음.

000 : 녹사평은 잡초가 무성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 이 공간에 식물과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기획방향을 잡았음. 녹사평은 이태원과 한강, 남산공원으로 가는 곳 삼거리에 위치해 있음. 사람이 오지 않는 이곳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식물공간을 만들려고 함. 녹사평을 초록섬이라고 명명하고 사람과 식물이 공존할 때 가능한 프로젝트로 추진하고자 함. 초록이 주는 생명력과 공간-식물-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임. 일상 속에서 지하철역이라고 생각하지만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장소로 만들려고 함. 녹사평은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됨. 지하 1층 400평의 로비공간과 지하 2층 200평의 개표소, 지하 3층 엘리베이터로 입장하여 일반인 출입이 어려운 공간이 있음. 지하 4층 650평의 공간이 있음.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식물이 주는 즐거움을 주제로 4가지로 구성하고자 함. 이는 각각 느끼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찾는 즐거움임.

1. 느끼는 즐거움

지하 5층의 바닥을 리뉴얼 하는 공간으로 도시안의 바닥재를 바꾸거나 공항공간을 바꾸는 등의 작품으로 채워짐 또한 식물들이 재배되는 공간 조성함. 프랑스 파리의 돔 형태의 실내정원 작품과 같이 건물 내부를 식물로 조성하여 공감각적 경험을 만드는 것임.

2. 보는 즐거움

보타닉 파노라마 : 지하 4층에 설치 벽면에 그리거나 설치하는 작품임.

루팅 라이트 : 아트리움 메인 홀에 빛을 담아서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작품임. 선을 활용하거나 조명을 활용하는 작품을 제작함. 기존의 공간(재료가 많고 복잡함)에 예술적 작품을 통해 정화시키고자 함.

3. 먹는 즐거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로 리틀 보타닉이라 명명하였음. 실내정원을 만들고 재배하여 주변상가에 판매하는 프로젝트임. 이케아 프로젝트와 런던 프로젝트 등이 있음. 녹사평 초록장 : 주말장터를 개최하여 꽃식물, 기타 식물들을 판매하고자 함. 시민들과 소통관계가 중요하며, 운영시스템 구축을 정밀하게 계획해야 할 것 같음.

4. 찾는 즐거움

녹사평 도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전시하고 출판하는 프로젝트임. 녹사평에서 삼각지까지, 용산에서 남산까지 리서치하고 향후 중요한 자료로 만드는 계획임. 시민참여가 중요하고 주민들과 함께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이며 상호 교환관계를 만들고 전시를 하는 프로젝트임.

위 4가지 카테고리안의 8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계획이며, 시민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함. 장기적인 측면에서 협의체의 활동이 필요하며 협의체를 이루고 자문단 활동과 큐레이터, 총괄감독이 상시적으로 만나 협의를 해야함.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카이브의 체계를 구축, 강화해야 할 것임. 국내간 네트워크, 국제간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임. 2022년 5년 뒤에 용산구청, 교통공사, 서울식물원과 함께 아카이브를 만드는 계획임. 전체 5가지 주제로 15가지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고, 8개는 올해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임. 단순히 초록섬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고 9억 서울교통공사 18억 포함하여 27억원으로 추진될 것임. 심의 후 2월 사업공고 3월 업체선정, 3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

000 : 어제 현장 답사를 하고 계획을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 어제 이야기를 요약하면, 예산규모에 비해 사업종류가 많은 것이 아닌지. 공간 규모에 비해 적은 예산인데 분산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식물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할 것 등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음. 또한 식물들을 누가 가꾸는 것인지 라는 의문이 있었고,
이 플랜을 근거로 해서 사업자 입찰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플랜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000 : 지난번 발표내용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녹사평역을
리노베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원을 만드는 것으로 바뀐 것
같음. 인테리어 개념에서 식물원을 만드는 곳으로 변형된 것
같음. 그런데 전체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졌는데, 확보된
예산에서 어느 부분을 해야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함. 우선
식물원을 만드는 그라운드 단계를 실행하고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 등이 있어야 함. 전반적으로
미술관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변형되었음. 프로젝트가 혼재되어
있으니 구분하여 추진해야 함. 그 구분을 해줘야 업체 입찰과
역사, 용산구청 등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음.

000 : 제한경쟁입찰의 형식이 어떤 것인지

000 : 지명공모가 아니라 제안해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과업내용서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임.

000 : 어느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추진을 해야 할지 결정이 필요함.

000 :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임. 녹사평이라는
지역명에 함몰되어 보타닉으로 간 것이 아닌지. 역사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녹사평 역사는 아주 초현실적인
공간이며 웨딩홀을 운영 했다는 것은 더 초현실적인 것이라
생각함. 역사의 물질감이 강해서 식물컨셉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임. 녹색이 과연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음. 회색은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공간이고 녹색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분법에 빠지면 안될 것 같음.

000 : 샤를드골 공항과 같이 초현실적인 공간이 아닌가 생각함.

식물원이 대부분 초현실적인 공간임. 한 공간에 전혀 다른 식물들을 모아놓은 것이 식물원이 아닌지. 초현실적인 공간에 식물원과 같은 컨셉을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듦. 생명체가 아니면 그 공간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임. 물론 관리를 잘해야 함. 식물들이 어마어마한 존재감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함. 기본 설정은 잘 되었다고 생각함.

000 : 이 과업의 최종내용은 어디까지인지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내용도 들어가는 것인지 오늘 PT 자료 외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료가 있는지. 이 대상지에 대한 서치가 필요함. 그런 것이 있는 보고서가 있는지. 1달밖에 공모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임.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자료가 다 있는지 궁금함. 한 달안에 전체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업임. 이 사업이 올해 말까지인데, 이것이 크리티컬 한 것인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는지. 10개월이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음. 모든 계획을 다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 해석의 여지를 더 많이 가져다주지 않는 것인지. 주제를 잡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초록섬이라고 했을 때 왜 이것이 섬인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 초록에 대한 것도 즐거움으로 해석했는데 잘 이해가 안됨. 스토리텔링이 중요함. 또한 스케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논의를 할 수 있음. 최종 성과물을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000 : 별도의 보고서는 있음. 구체적 사례를 만드는 것이 이 용역이고 마스터플랜은 올해 안에 나올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 과업 안에 있음. 녹사평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고, 이 보고서안에 포함된 것은 장기적인 플랜을 해야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임. 1단계는 장소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며, 녹사평역이 공공미술을 통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임. 2단계 협의체를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제시가 과업의 내용임.

- 000 :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늘이 최종 마스터플랜이고 2월 22일 계약심의 통과 후 입찰을 내보내게 됨. 3월 말경에 업체선정, 시공자, 기획자를 실적, 가격평가, 신용도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됨. 4월초 업체와 협상하고 착수하게 됨. 1달에서 1달 반경 시간을 주고 설치하는 계획임. 메인작품이 있고, 작품은 별도 공모기간을 주어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임.
- 000 : 원래계획은 27억으로 연내에 끝내는 계획이었으나, 현장공간이 넓고 마스터플랜이 폭넓게 계획되어 한해로 끝낼 사업은 아닌 것 같음.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음.
- 000 : 마스터플랜인데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획자가 있어야 하며, 큐레이터가 같이 공모에 들어와야 한다고 느껴짐
- 000 : 마스터플랜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해주면 될 것 같음. 제안해주신 국제공모와 곳곳에 작품이 설치되는 큐레이팅 등 계획을 같이 가지고 들어와야 할 것 같음.
- 000 : 이 제안서에 따르면 식물원이 만드는 그라운드를 만드는 작업만 27억이 넘음. 대형조명 작품만 해도 기본 10억 이상이 들 것임. 올해 예산에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움. 식물원이 되기 위한 밑그림 만들기 사업을 하고 내년에 아트웍을 하는 방향성이 필요함. 1단계, 2단계 구분과 외부적 가시적 효과도 고민해야함.
- 000 : 이 테마 역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임. 단계에 대한 부분을 교통공사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 000 : 시예산 9억과 교통공사 18억 인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임.
- 000 : 이 부분부터 정리가 되어야 함. 디자인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 000 : 결정할 수 있음.
- 000 : 1단계는 그렇지만 2단계는 어렵다고 생각함. 각 주체별로 협의가

있어야만 마스터플랜 전체 논의냐 아니면 부분만을 논의하는 것이냐 라는 정리가 필요함. 심

- 000 : 중요한 지적임. 이제껏 해오던 방식에서 자문을 하고 반영되고 보완되는 형식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단계는 그렇게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음. 이것을 토대로 다음 달에 공고를 낼 수 있는지. 1단계 골자만 가지고 공고를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함. 000 위원님 말대로 녹사평에 적합한가라는 고민도 필요함.
- 000 :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000 소장와 위원 몇 분이 의견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장치가 있다면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음. 다음 단계에 대한 장치가 필요함.
- 000 : 행정적 설명을 드리면, 테마역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디자인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공공미술 작품임. 서울교통공사 측 예산 9억과 도시교통본부 매칭사업 9억이 배정되었고 공공미술로 추진하면서 교통공사에서 디자인정책과에 이관하여 일괄 예산을 집행할 것임. 마스터플랜 기획한 분과 실무진 입장에서 검토결과 1년으로 끝내기는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음. 내년에는 디자인정책과에서 추가예산을 수립하고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매칭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전체적으로 디자인정책과 사업임. 식물을 모티브로 한 사업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별도로 논의를 하고, 예산편성, 운영방안 논의를 통해 수립할 계획임.
- 000 : 이것에 대한 논의는 위원회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음.
- 000 :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과정의 히스토리가 공유되지 못했다는 점이고 둘째 마스터플랜으로 명명되는 것은 반대했는데 단기간에 끝내는 사업이었으나 변형되었고, 마스트플랜이 전제가 아니었고 방향을 담아낸 기획이었음.
- 000 : 심의안건은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임. 마스터플랜의

내용으로 수정이 아니라 할지 말지를 결정해주시면 됨.

000 : 다음 심의로 미룰 수 있는지. 말씀들을 들어보면 공공미술사업의 시범사업의 성격을 보여짐. 실내 식물정원을 만들고 시민참여형 식물공장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이나 최종보고에서 실현성, 앞으로의 운영에 관한 부담 등이 크게 다가와 위원분들이 우려를 하신 것 같음.

000 : 전체가 갖춰지면 소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형식이 좋겠음. 라키비움 컨셉을 가져와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전 회의와 컨셉이 아주 달라졌는데, 누구와 공유해서 달라진 것인지 궁금함. 디자인정책과에서 결정한 것인지, 위원회에서 공유해야 할 것인지가 결정이 중요함. 툰키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000 소장이 큐레이터인데, 큐레이터로 결정이 된 것인지. 전체 용역인 것인지

000 : 큐레이터 선정은 안되었음.

000 : 이 형식을 발전시키는 계획안과 시공자가 제안서를 만드는 방식임. 큐레이터가 들어오지 않는 형식임.

000 : 백지상태에서 공모를 추진해야 함. 예산을 두고 어느 부분을 정해서 제안을 하라고 공모해야함. 다만, 모든 것을 결정해놔서 대행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인테리어나 시공가 공모가 될 것 같아 걱정임. 마스터플랜을 누가 짚는가가 중요한 것인가가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필요함.

000 : 전체 마스터플랜을 공유하고 다음 주 정도 의견을 주고 취합하여 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음.

안건 2. 퍼블릭 퍼블릭

000 : 2016년부터 세계 책의 날 축제에서 북벤치 10점이 시작되었고, 지난해 크게 진행해 공공미술 축제 퍼블릭 퍼블릭으로 진행하여 30점으로 늘리고, 초크아트로 시민 7,400명 참여했었음. 올해도

계획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 000 : 예산 2억이고 2일에 걸쳐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2016년 벤치를 만들자라는 안으로 시작했고 지난해는 광장바닥에 색분필로 일시적인 행사를 진행했는데, 전문작가가 아니라 대중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음. 작년의 사업을 지켜보면서 느낀바는 시민관련 부대행사처럼 느껴졌음. 공공미술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까하는 고민이 있었고, 작년 000 교수의 벤치 디자인 자문을 주셔서 결과물이 제작되었고, 결과물을 활용하는 것이 또한 일이 되었음. 30개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인데, 지속적인 사업으로 적합할 것인지 내용을 보완해야할 것이 있는가라는 고민이 필요함.
- 000 : 진보된 방향이되 프로그램은 새롭지는 않음 뉴욕 퍼블릭펀드에서 추진한 퍼블릭아트 위크의 경우 시민들 상대로 트위터로 참여하여 붐업시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여 프로젝트를 다이내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000 : 10월 국제컨퍼런스와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기간과 겹쳐짐 현대미술 축제가 있는 옆에서 분필과 바닥에서 그림 그리는 형태의 사업은 보완해서 다시 논의해야 함.
- 000 : 설명이 필요함. 시민들의 공공미술 참여효과가 높음. 그런데 무엇에 참여하는 것인가가 중요함. 미술행위에 참여시키는 것보다 공공적 아젠다가 필요함. 단지 미술행위를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이 공공미술이 아닐 것임.
- 000 : 지난해 3개월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종료 후 10명의 큐레이터가 아쉬움을 토로했음. 연계해서 서울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논의를 더 해서 다음 번 심의 안건으로 논의하는 것을 결정하겠음.
- 000 : 벤치랑 초크아트는 아니고 퍼블릭 퍼블릭은 좋음. 초크아트를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참여하고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애들을 데리고 나왔다가 그리다가 가버리는 것을 보면서 시에서 시범으로 하기는 민망함이 있었음. 공공미술 주관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함. 그 주간동안 발굴단을 활용할 수 있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획할 수 있음.

000 : 작년에 디자인관련 업체가 많아서 사업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이행을 하였음. 그러나 한계가 있었음.

000 : 서울문화재단이랑 협업은 안되는지

000 : 문화본부안에 있으니 함께 할 수 있음.

000 : 그쪽이랑 연계해서 같이 가줘도 좋겠음. 컨퍼런스 전후해서 시민참여 공유해서 하는 것도 좋겠음. 행사를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음.

000 : 이전에 문화재단이랑 일을 했음. 문화재단도 확인해서 협업 할 수 있음.

000 :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뭉치면 시너지 효과로 더 좋을 것임.

안건 3. 국제컨퍼런스

000 : 오늘 심의안건은 운영업체 먼저 뽑자는 내용임. 미술계 큐레이터를 업체에 영입해서 내용을 만들어 가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함. 형상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전시와 영구적인 작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안으로 형상의 일시성과 영구성을 잡았음. 행사는 10월 초 퍼블릭 행사와 연계하는 것으로 잡았으며, 지속적인 행사를 위해 시청 다목적홀과 역사박물관 둘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주시면 좋겠음.

000 : 주제는 임시로 정한 것임.

000 : 주제가 없는 것으로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

- 000 : 서울시 공공미술에 가장 난제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함. 일시성 영구성도 좋으나 불박이로 세우는 동상으로 할거냐 등 흥미로운 주제일지 궁금함. 동상에 대한 것도 어느 단체가 구청장이 뭐하나 해볼까 하면 위원회 안전으로 상정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함. 적어도 공공미술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해보여서 제안해봄. 1회때는 현황과 해외 동향이었고, 2회는 오브제나 액티비티를 가지고 실험적 사례를 소개했었음. 흥미롭지만 가장 시의적절한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 듦. 2회를 진행하면서 업체가 행사는 원활하게 잘 진행해 주어 흡족했지만, 제일 급한 일들 다 두고 이상적인 사례들만 소개받는 느낌이었음.
- 000 : 지난 행사에서 실제 플로어에서 의견을 듣고 토론하면서, 시급한 것을 이슈화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음. 참여의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주제가 되어 거리가 멀고 개입이 어려웠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것이면 좋겠음. 올해처럼 미리 한다면 주제에 맞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 통계데이터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면 좋겠음. 관련자들이 동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발표하면 어떨까 함.
- 000 : 정치적 격돌에 따라 동상을 파괴할 정도로 정치적인. 역사적인 내용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없음.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가장 이슈일 것 같음. 컨퍼런스 시기가 10월 달로 가기 때문에 동상 신청건은 4.5월 이슈가 될 것이라 늦을 수 있음. 연구자들에게 연구준비를 시키고 적극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끌고 갈 수 있음.
- 000 : 큐레이터 본인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으면 좋겠음.
- 000 : 운영대행자를 선정하는 안으로 가겠음.
- 000 : 보통 대행업체를 선정 공고 하더라도 방향을 대략 정해줘야 함. 아웃라인을 정해줘야 외국 연사들 제안도 범위가 있을 것임.
- 000 : 기획을 디자인정책과에서 하고 실행업체를 선정할지, 기획자

공고를 내고 기획자의 제안공모를 보고 그것을 뽑는 것 아닌지

000 : 업체와 큐레이터를 동시에 뽑는 것은 안됨. 기획사가 이런 큐레이터를 제안하여 뽑아야 함.

000 : 핵심은 주제가 중요하지 않는지. 주체가 디자인정책과인데

000 : 방향을 다 기획사에 맡길 수 없음.

000 : 실질적으로 기획도 위임하는 것인지 자체 기획인지가 결정되어야 함. 자체적으로 기획 심의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획료를 받고 사업 대행자 공고를 해야 할 것임. 기획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관점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업체를 뽑아야 하지 않는지

000 : 자체 기획을 안하면 기획자 공고를 한쪽에 하고, 동시에 시행사 공고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임. 양쪽을 매칭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지

000 : 대행사는 미션을 주면 됨. 산술적으로 주는 내용만 주고 입찰하고 심의하면 됨.

자료검토 1. 동상 기념비 등 심의 운영방안

000 : 심의가 오면 2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함. 역사적 가치평가의 기준이 걸려있음. 이미 접수가 되어 있는 동상은 3월 16일까지 결정을 해야 함. 그때 그때 진행해야 할 심의가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상의 경우 다수결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에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특히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 인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해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납득할만한 객관적 통계자료라도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드는게 필요함

000 : 동상 기념비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는지

000 : 공공미술작품 조례로 통합되어 있음.

- 000 : 공공공간으로 나오기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000 : 사유지나 국유지의 경우 심의를 추진함
- 000 : 동상의 디자인을 떠나 타당성을 심의할 수는 없음. 실질적으로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미술위원회는 건립의 타당성이 확보된 이후에 조형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심의가 가능함. 타당성까지 심의하는 것은 어려움. 시민과 공동체의 합의가 있어야 함. 건립의 타당성이 합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의가 필요한 것인지. 국민의 2/3이상 동의를 받는다든지 기준이 필요함.
- 000 :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을 내세울 수 가 있으며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보완해서 온다면 2달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함.
- 000 :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공공기념물인 경우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을 만드는 등 한계를 정해야 함. 건립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임. 소녀상도 계속 심의에 올라오고 있는데 조형성, 적정성을 따지기 이전에 타당하냐 아니냐의 판단은 위원회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 000 : 건립위원회는 어떤 규정에 의해 건립하는지. 역사학자가 판단하더라도 평가하기 어려움. 애초에 조례나 규칙에 발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지
- 000 : 동상을 추진위원회에서 만들고 반대단체에서 훼손하고 훼손 이후 관리 문제 등 추진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음.
- 000 :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역사적 이해와 관련하여 서울시 역사편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다거나 하는 등 조례에 적용할 수 있게 하겠음. 공공미술위원회에서는 공공미술을 심의하는 것임. 디자인정책과에서 안을 만들고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음.

000 : 조만간 마스터플랜 전문을 위원분들께 보내드릴테니 보완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미술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